

# GS칼텍스, VHCR 고도화시설 완공

총 2조6000억원 투입 9월 상업가동 ... 전량 수출 6000억원 수익 기대

GS칼텍스는 단일 고도화 설비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VHCR(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을 준공하고 9월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착공한 VHCR 고도화 시설은 하루 6만배럴을 정제할 수 있으며, GS칼텍스는 총 2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고도화 시설은 품질이 낮은 벙커C유로 고부가가치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GS칼텍스의 VHCR 고도화 시설은 국내 최초로 벙커C유보다 더 싼 초중질유를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VHCR 고도화 시설이 가동되면 GS칼텍스의 고도화 처리능력은 15만5000배럴에서 국내 최대인 21만5000배럴로 늘어난다.

고도화비율도 20.7%에서 28.7%로 상승해 정유4사 가운데 가장 높아지게 된다. 국내 정유기업의 고도화비율은 SK에너지 15.4%, S-Oil 25.5%, 현대오일뱅크 17.0%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GS칼텍스는 3700억원을 폐수처리, 대기·토양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에 투자했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변화하는 석유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해 아시아에서 배럴당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량 수출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2>